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의 효용

김치원 2015.8.14





효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함

효용 평가

제품 설명

의학적 효용

문제 인식

문제 해결



• Zeo

: 수면 감시









Hidrate

: 스마트 물병









• MC스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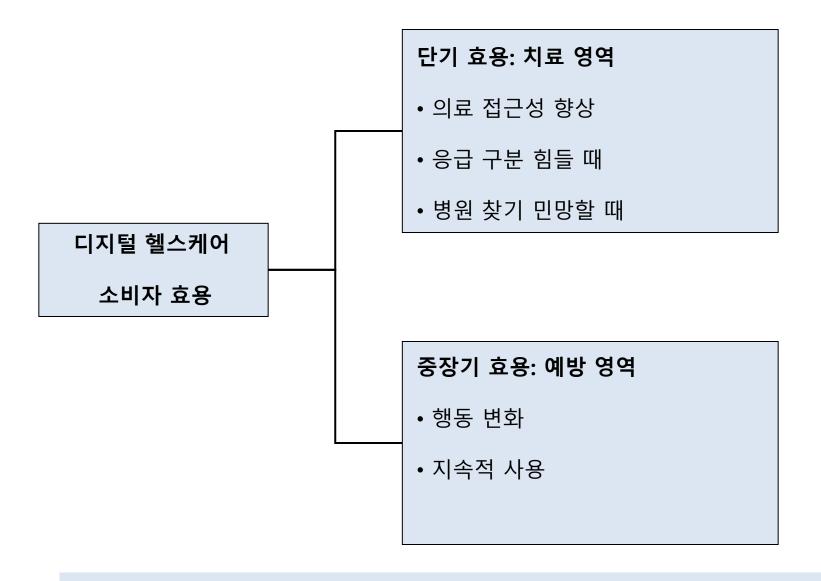




- 의학적 효용이 존재한다고 해 서 소비자가 문 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님
- 디지털 헬스케 어 제품에서 세 가지 효용이 모 두 중요하고 특 히 의학적 효용 을 중요하게 생 각함
- 하지만 비즈니 스의 관점에서 도 의학적 효용 이 가장 중요할 까?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효용을 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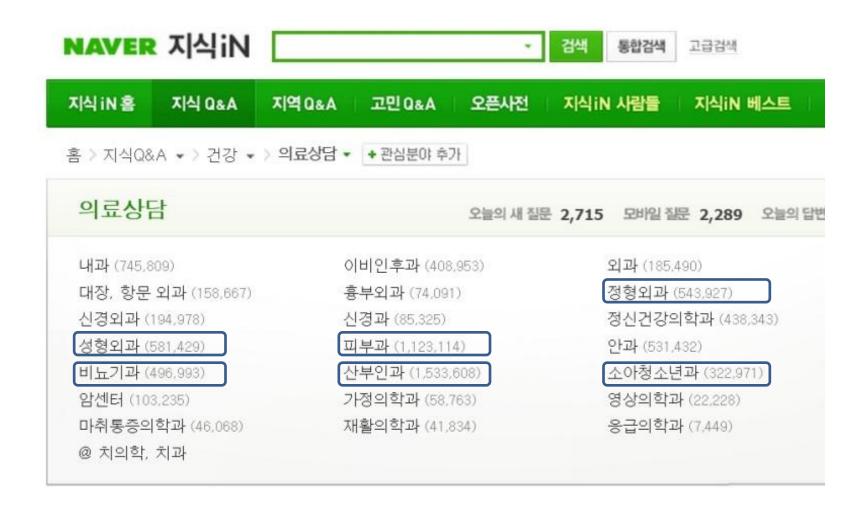
소비자 단기 효용: 의료 접근성 향상







소비자 단기 효용: 환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소비자 단기 효용: 환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소비자 중장기 효용: 활동량 측정계에서 정확한 거리 측정이 중요 한가?

Figure 1. Device Outcomes for the 500 Step T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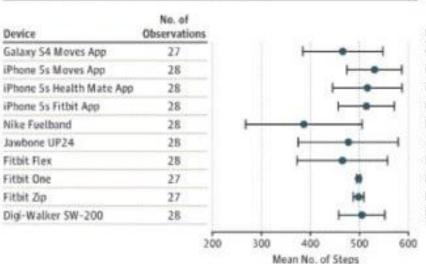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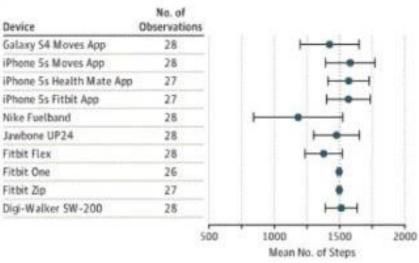


Figure 2. Device Outcomes for the 1500 Step Trials



The vertical dotted line depicts the observed step count. The error bars indicate 1SD.

The vertical dotted line depicts the observed step count. The error bars indicate 15D.

정확한 거리 측정이 중요할까 아니면 기존보다 한걸음 이라도 더 걷게 만드는 게 중요할까?



소비자 중장기 효용: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시 스템 구축이 중요함







소비자 중장기 효용: 제2형 당뇨병 사례

VerioSync



당뇨병 치료에서의 가치

- 혈당계 데이터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것 이 어떤 효용이 있는가?
- 지속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 어떤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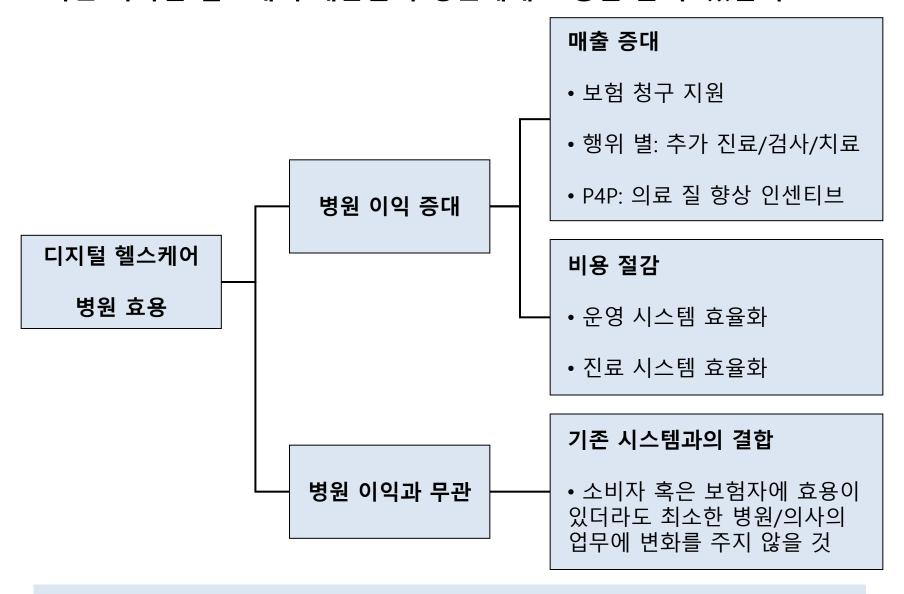
BluesStar



- 소비자가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 의사가 만든 제품의 한계는?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병원에게 효용을 줄 수 있을까?





병원 매출 증대: 행위 별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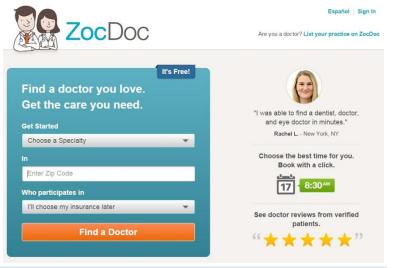


원격진료: 의사에 주는 효용

- 비는 시간 활용 가능
- 특히 은퇴한 의사들
- Teladoc의 경우 최대 연 10만불을 버는 의사도 있음 (평균 연 6~7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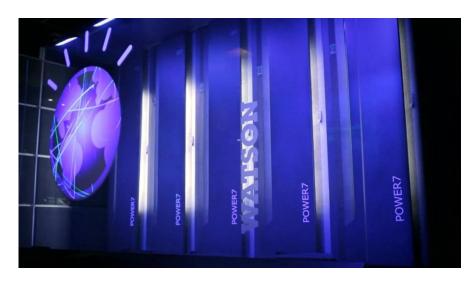
예약 서비스: 의사에 주는 효용

- 미국 외래는 예약 시스템
-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 진료 slot 포기?
 - ✓ 예약 앱 활용?





병원 비용 절감: 진료 시스템 효율화



IBM 왓슨

- 의료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 암 환자의 적절한 치료법 제공 노력
 - 적절한 치료법을 evidence 및 신뢰구 간과 함께 제공
 - 아직 진료 현장에 적용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발전 가능성은 충분함
- 이슈는 비즈니스 모델
 - 병원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 혹은 매출 창출이 있어야 함
 - 결국 의사 대체로 인한 비용 절감이 있어야 할 것임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효용

내용

1차 예방

- 평소에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
- 체중 감량 및 생활 습관 교정 등

2차 예방

• 질병에 걸린 것을 최대한 빨리 진단

3차 예방

• 기존에 있는 질병을 잘 치료

미래 효용

• 지속적인 행동 변화

• 질병 발생 전 예측

- 질병에 대한 의학 지식 창출
- 새로운 치료 방법 개발



지속적인 생체 신호 축적은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 있을까?



24시간 심전도



혈압 측정 웨어러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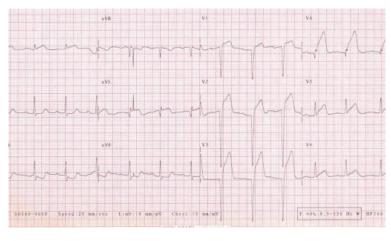
- 기존 의학 지식은 단속적인 생체 신호 측정에 바탕을 둠
- 지속적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할 방법 이 마땅치 않거나 가능하다고 해도 24시간~수일 이상 지속하기 힘듦
- 의사들은 지속적인 생체 신호 측정 장비의 효용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음
- 많은 사람에게서 매우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했을 때 기존에 없는 의학 지식을 얻을 가능 성 있음
- 그러한 의학 지식은 진료의 근본을 바꿀 지 모름



일상 생활 속의 데이터 축적이 어떤 효용을 가져올 수 있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생체 신호 웨어러블

새로운 의학지식 축적



기업별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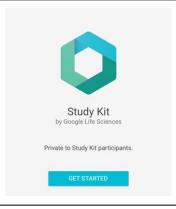
애플, 샤오미: 굳이 사서 쓸 필요가 없는 센서가 장착된 제품을 사게 만듦





구글: 의학 연구에 투자하여 지식을 창출함







Digital Health는 의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Kaya 2007-01-11 20

iPhone을 한국에서 쓰게될지도...(이찬진씨 블로그에서)





아이폰의 역사

1. 2007 아이폰2G (아이폰 1세대)

http://blog.dreamwiz.com/chanjin/5703859

애플의 iPhone 발표로 전세계가 뒤집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혹은 오버하지 말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수에 의해 움직이고 그 다수를 움직이는 건 앞선 소수라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에 Digg에서 iPhone이 유사이래 최대의 digg를 받았다는게 간단히 흘려버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볼품 없은 아이포드 5기가 제품이 5년 전에 나왔을 때에 누가 지금의 상황을 예상했겠습니까.

아이포드 열풍이 한참일 때에도 누가 천곡이 넘는 음악을 하드에 담아다니겠냐고 하면서 진실을 외면했지만 그런 사람들 수가 꽤 많았고 소수라고 생각됐던 그 숫자를 바탕으로 아이포드의 신화가 생긴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최근의 영화에 비치는 컴퓨터는 모두 아이맥이라는 농담이 이제 농담으로 안 들리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무선 마우스에 무선키보드까지 최고의 조합이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프리미엄 폰을 사용해야지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수백불을 냈던 고급 손님들이, 삼성이나 모토롤라 노키아의 폰들과 함께 iPhone을 놓고 비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전 지릅니다. 제 주변의 iPhone 발표 키노츠를 본 분들은 다 지른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GSM이 안되는 우리 나라에 태어난게 한스럽다고까지 하시더군요. ^^ 언제나 CDMA는 찬밥이라고...